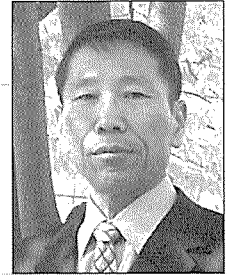


가을저편으로 문헌정보과를 떠나보내며!



임 동 빈*

이미 어둠이 짙게 드리운 나의 연구실 창밖에는 이른 가을비가 소리내며 내리고 있다. 오늘 하루도 정신 없이 각 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유치를 위해 보낸 시간이기에 말할 수 없는 피로감이 온몸을 엄습해 온다. 지친 희미한 눈을 들어 연구실 사방벽을 천천히 둘러본다. 연구실 어디를 보나 뿅뿅이 서가에 정렬된 문헌정보학 관련 서적들! 특별히 늦각이에 시작해 죽을 힘을 다해 박사학위를 위해서 전국 각지를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수집한 많고 많은 나의 고귀한 분신들! 그들과 함께 한 지난날은 진정 행복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소중한 나의 분신들이 내 앞에서 서서히 퇴물이 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영원히 들볼 수 없을 것 같은 저만큼 멀어진 추억의 파편들처럼 말이다. 나는 눈을 감아버린다. 내 주위에 뿅뿅하게 들어찬 그 분신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웬지 모를 한줄기 뜨거운 눈물이 책상의 유리판에 방울되어 떨어진다. 지난 세월을 안타까워하며...

우리 대학 문헌정보과는 1979년에 시작하여 그동안 많은 준사서를 배출하여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지금 전국 각지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2000년을 넘기면서 현격하게 줄어든 고등학교 인적자원의 감소로 도저히 믿기 어려운 학과의 폐과문제가 내 자신 앞에 서서히 죽음의 사자처럼 다가왔다. 그 후 매년 줄어드는 입학생 감소로 결국 30~40%정도 밖에 채우지 못하는 기막힌 현실 앞에 2002년부터 대학은 생존전략 차원에서 전면적 구조조정이라는 명제를 내걸고 우리 학과를 비롯하여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몇 개의 학과에 대하여 무자비한 폐과선언을 내린 것이다. 다시 해보겠다는 우리의 의지도 처절한 애원도 모두다 허사가 되었고, 오로지 탄탄한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 나자신을 책망하며 돌아서야 했다. 무엇보다도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것은 대학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무서움보다는 내가 평생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

* 동부산대학 문헌정보과 교수, dblim@dpc.ac.kr

던 학문과 제자들을 모두 잃어버린다는 안타까움이었다. 어찌 그 뿐이겠는가? 많은 세월동안 열굴 맞대고 서로 울고 웃던 동료교수들은 완전 무장해제 당한 무명용사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낯선 다른 학과로 각기 떠나야 하는 아픔은 차마 생각조차 하기 싫은 아픔이었다. 이 모든 것이 시대적 조류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 대학인 모두의 아픔이라고 생각해도 아직까지 가시지 않는 아픔이 지속되는 것은 아마도 지독한 정(情)때문이라고 생각해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이러한 안타까운 사태가 우리뿐이 아닌 다른 전문대학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학계는 진정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 정말 궁금했다. 만약에 학계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어찌 그리 무심함 한 지 누구 한 사람도 문의 전화 한 통 없는 그 현실이 나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했다. 그리고 혹시 정말 몰랐다면 철저한 방관, 그것뿐인가? 하는 한스런 아쉬움이 남는다. 한쪽에선 학과 폐과라는 엄청난 사태 앞에 떨며 아파하는 지우(知友)들이 있는데 철저한 무관심으로 보고만 있는 우리들이라면 앞으로 무엇을 함께 나누며 발전할 것인가! 물론 때늦은 원망은 결코 아니다. 오직 이런 사태를 미리 알아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나 자신의 무능과 부족함을 철저히 원망할 뿐이다.

이번 학과 폐과라는 엄청난 현실 앞에 우리 문헌정보(학)과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결코 무풍지대가 아님을 깊이 알았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대학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교 인적자원 속에서 우리는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시스템을 우리 문헌정보학계에 이식시키지 못하고, 오늘 같은 구태의연한 학문의 패러다임을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 없음은 불 보듯이 자명한 일이다.

문헌정보학이 가지고 있는 학문으로서의 불안전성, 유사학과들의 탄생, 그리고 무엇

보다도 심각한 것은 졸업생들의 취업이 어렵다는 것이 학생들이 기피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대학에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현장 중심적인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극 개발하여 지금 이공학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장과의 맞춤형 연계교육시스템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이 엄청난 파고를 이기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본다. 이제 우리와 같은 불행한 역사를 계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오로 다시 발전할 수 있는 방향모색이

전문대학에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현장 중심적인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극 개발하여 지금 이공학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장과의 맞춤형 연계교육시스템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이 엄청난 파고를 이기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본다. 이제 우리와 같은 불행한 역사를 계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오로 다시 발전할 수 있는 방향모색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학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될 줄 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학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될 줄 안다. 고작 학계에서 1년에 한 두 번씩 하는 학술모임으로 무섭게 변화하는 우리 문헌정보학 주변 교육현실을 어떻게 해결하지는 말인가? 물론 아직도 잘 나가는 지역의 대학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고 반문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지방 전문대학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이 분명 머지않아서 전국으로 확대되어 똑같은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는 오늘의 현실을 깊이 받아들이고 인식하자. 어떤 대학이든지 신입생 감소 사태가 지속되면 대학에서는 절대생존을 위해서 인기학과 설립을 위한 구조조정 작업에 분명 착수하는 것이 철학이다. 그러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학과의 통폐합은 불가피한 사안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되면 교수직의 신분은 절대 보장받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닫는다. 여기에는 폐과 대상 해당교수의 어떤 대안제시도 통하지 않으며, 오직 대학생존의 전략 틈바구니 속에서 처분만 기다려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학의 현주소다. 학생이 없는 가운데 대학교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론으로 오직 학생이 많을 때 대학교수의 신분과 권위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기막힌 이론뿐이다. 때문에 이제 대학교수는 학문과 학생유치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기 위한 적극적인 마음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다가왔다. 나는 대학교수라는 알팍한 권위는 이미 버린 지 오래 되었다. 이제 살아남기 위한 나만의 철학을 연습 중이다. 연구실에서의 학문연구 뿐이 아닌 밖에서 살아있는 달인이 되고자하는 연습을 하는 중이다.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이해하며 내가 가진 철학 속으로 그를 용해시킬 수 있는 인간경영을 힘써 배워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나 자신도 서서히 마음에 평화를 찾아가고 있다. 이제 대학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걸어야 될 새로운 학문에 대한 기대감과 포부 속에 마지막 남은 십 여명의 문헌정보과 2학년 학생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십 여명! 그들이 내가 아꼈던 문헌정보과의 마지막 분신들이기에 더없이 소중한 존재들이다.

이 가을비가 그치면 그들과 짧은 여행길에서 소중한 마지막 이별을 하고 싶다. 그래서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그리고 무섭게 다시 시작하리라. 이미 학과 배정이 끝난 나는 새로운 학문에 도전하기 위해 밤과 낮이 짧지만 분명 나는 해낼 것이다. 두 번의 실패를 용납하는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지난 날 아픔의 긴 터널을 거울삼아 더욱더 열심히 학과를 지키고 학문을 지키며 웃으며 살아 갈 것이다. 그러나 어찌 한평생 나와 함께 꿈을 꾸던 문헌정보학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겠는가? 그러기에 내가 평생 모으고 사랑했던 이 많은 연구실 친구들도 사랑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역시 가꾸고 다듬을 것이다. 문헌정보학에 함께 몸을 실은 전국의 지우(知友)들이여! 이제는 방관 아닌 아름다운 정으로 언제나 서로 지켜보아 주고 격려해주는 학문의 동반자가 되었으면 하는 조그마한 소망을 마지막으로 띄우고 싶다. 올 가을은 지난 해의 우울한 회색빛 가을이 아닌 아름다운 영롱한 가을로 채색하고 싶은 것이 또 나의 작은 소망이다. ☺